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창세기, 사도행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3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창세기, 사도행전

총현교회 5대 목표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지역사회 봉사



표지 설명 / 지난 2월 2-5일 실시한 '98청지기훈련은 총현의 청지기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말씀의 잔치, 청지기훈련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월이라니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다사다난한 일들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예수님 따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초에는 많은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왔던 청지기훈련이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 분의 귀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시편과 이사야서와 히브리서가 열려질 때, 우리들 앞에 뚜렷이 드러나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승리를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전사이셨고, 단번에 구원을 성취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지시는 여호와와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신 것이 온 성도들 앞에서 확인되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총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뒤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와 말씀의 심김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관 위임목사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충현의 만나

1998년 3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사도행전 서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개인서신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누가 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로서 '의사'(골 4:14)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많은 전도여행에 동행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곳곳에는 '우리'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16:10). 그리고 그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끝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딤후 4:11).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누가복음 1:3-4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함으로써, 데오빌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연구자의 마음으로, 또 역사 기록자의 자세로, 정직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1-7장, 8-12장, 13-28장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용된 구약성경들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 사도들의 증거와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능력 등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구원의 도를 담아 전할 질그릇으로써 교회들이 이곳 저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연대는 대략 63-64년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의 흐름

1:1-8:4	예루살렘에의 증인들	11:19-12:25	안디옥교회의 설립과 헤롯의 핍박
1:1-2:47	교회의 설립	13:1-28:31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3:1-8:4	교회의 성장	13:1-14:28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8:5-12:25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	15:1-35	예루살렘 공의회
8:5-40	전도자 빌립	15:36-18:22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9:1-31	사울의 개종	18:23-21:16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9:32-11:18	베드로의 사역	21:17-28:31	바울의 로마여행

“...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42:28)

애 곱과 가나안은 기후도 다르고 자연 조건들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지역에 함께 흉년이 든 것은 특이한 일로, 우리는 이같은 흉년으로 인해 요셉이 잃었던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면담하였을 때, 요셉의 태도는 매우 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 넣게 만든 일들도 형들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의 태도를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야곱과 베냐민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형들은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보상을 그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22절). 그들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들과 야곱은 요셉의 꿈대로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 (43:8)

본문의 관심은 다시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 노심초사 하는 형제들과 야곱의 반응에 쏠려 있습니다. 양식을 다시 사러 가기 위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형제들과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야곱의 고집이 결국 이들로 하여금 2년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유다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연로하고 성급하고 우유부단한 아버지 야곱을 확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르우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할 위기들도 유다의 헌신으로 그 모양이 더욱 돋보여질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하겠다는 그의 결단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훗날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구속사적 맥락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의 헌신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편 형제들이 요셉을 두번째 만났을 때, 자기들에게 잔치를 열어 준 것을 함정으로 생각하여 그들은 필사적으로 무죄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하였으며 마치 노예처럼 행동하면서 요셉이 자신들의 속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츰 긴장이 풀리면서 두번째 만남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44:16)

형제들이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날 때는 일이 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므온도 풀려났고, 베냐민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가 쫓아오면서부터 형제들은 악몽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도둑으로 몰린 그들은 몇 가지 점에서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그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바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또 다른 형제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버려두고 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거니와, 베냐민 때문에 다 함께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데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는 말로 자신들이 모두 그 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 사이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베냐민을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죄받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 주신, 유다 지파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45:8)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이면서 헌신적인 제안을 하자, 요셉은 더 이상 신분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도리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래 전 그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죄값을 치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형제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끌어 오신 은총의 섭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들을 위로하기 위한 포장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형제들에 대한 원한은 손끝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이 서려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어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오는 야곱을 통해서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애굽에 400년간 머물게 되리라는 말씀)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② 충현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 (46:1)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래로, 하나님이 자신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정녕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구별하여 인도한 요셉의 처신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훗날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갈 것을 유언한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가족들이 유목민임을 강조하여 애굽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훗날 이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들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훗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47:29)

요셉은 애굽으로 피난온 가족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며 풍족한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고센땅은 목축업을 하기
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는데 애굽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히 여겼기에 이곳
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면 풍요도 누릴 수 있었으며 동시에
애굽사람들의 간섭도 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까지 바로 이 고센땅에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7절 이하에 나타난 야곱의 말을 주의깊게 살
펴보아야 합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땅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
으로 갔다면 그들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은 요셉에게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땅에 장사하지 말
고 반드시 가나안땅에 장사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잊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잠시 피난왔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
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
신을 따라 살면서 모든 삶의 기준을 육신의 안락에 맞추기 쉬운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민움은 우리를 가장 가지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
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48:5)

야 곱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정성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축복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본래 애굽여인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축복한 것은 우선 가족의 일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뜻과 동시에 그들을 믿음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 어떤 아들보다도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서는 두 지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세주의 육체적인 혈통의 조상은 유다로 이어지지만, 요셉은 르우벤을 대신하여 야곱의 장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대상 5:1).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지만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을 15-16절에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차자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후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여 주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49:1)

어느덧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에, 선조들이 거하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함으로써 자신의 후손이 애굽에 정착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이제 12명의 아들을 불러모아 놓고 차례대로 그들의 앞일에 대하여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받게 되는 축복은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아들과 그렇지 못한 아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령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대상 5:1). 그것은 그가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하였기 때문입니다(창 35:22). 반대로 요셉이 받게 되는 축복은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큼니다. 이것은 두 말할 이유도 없이 요셉이 아비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만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누구를 더 축복하고 덜 축복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의 역사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감사와 두려움으로 응답하여야 할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50:8)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땅 마르세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지내게 됩니다. 이곳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샀던 곳이며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유골이 묻혀 있고 야곱이 레아를 묻은 곳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아버지를 장사지내겠다는 요셉의 모든 청을 흔쾌하게 허락해줍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인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땅의 장로들이 참석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고향땅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다시금 가나안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 하겠다는 교훈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게 함으로써 자신의 후손들이 자칫하면 현실의 안일에 빠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기 쉬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50:25)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들은 자신이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요셉이 자신들을 멸시하여 옛죄를 물어 벌할까 봐서 두려워진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했던 야곱의 말을 인용하며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빕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오히려 읍니다. 살기를 바라며 떠는 형들의 모습이 민망해서 울었는지, 아니면 매정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19절).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위대한 신앙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유언에서입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지낼 만한 사람이 없음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를 바란다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관용을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8)

본 문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위임 명령과 승천의 장면이 나타나 있고 승천 후 제자들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위임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육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면서 오히려 한 가지 명령, 곧 복음 전파의 대위임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때까지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명령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갑시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 ” (1:16)

본 문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최후에 관한 기록과 결원된 사도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비 뽑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넘긴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18절).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목메달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 27:3-10). 마태와 누가의 공통점은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행실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성경을 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문에는 초대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의 자격과 본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한 자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22절), 봉사하는 일입니다(25절).

이것으로써 초대 교회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명백하여 졌습니다. 사도의 보결 제비뽑기의 결과 제자들은 맛디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제 길을 갑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악한 자의 방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구원의 물결에 저를 참여시켜 주소서.

▶ 기도 제목 \ ① 불의한 길에 들어 서지 말며,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감 당케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2:4)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 저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이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이었던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병행을 이룹니다(출 19:16-19). 이 두 사건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백성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기독교 공동체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첫 결과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아래에서 나뉘었던 언어가 순식간에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 새 백성의 모임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 새 백성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엮어진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되게 하소서.

“...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2:36)

오 순절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설교하였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설교에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을 통하여 오순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성령 강림의 역사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이며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성경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들이 행한 설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36절).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삼하 7:12, 13; 시 89:4, 132:11)을 상기시키면서 시편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으므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결론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3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든든히 자리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2:42)

성령받은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42절).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성령충만한 감격을 잃어 버리고 다시 메마른 삶을 살아 갑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42절). 그들은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이러한 유무상통은 욕심을 버린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46절).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고 하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쓴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습니다(47절).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 다시금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성령충만한 제자들은 기도와 교제, 말씀과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3:3)

본 장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본격적인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처럼 본장에 이르러서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성령님의 앓은뱅이 치유사건을, 11-26절은 베드로의 담변과 두번째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0절은 앞장에서 서술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2:1-13절)의 결과로 일어난 수 많은 이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슥 12:8)고 예언한 내용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로, 11-2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의 실체임을 나타내었고(16절), 영육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18-20절), 예언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21-26절). 앓은뱅이를 일으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내용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케 되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만 따라 가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천하 인간에 구원을 ...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 (4:1-22)

본 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 모인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던 중(3:11-26)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핍박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2-3절에서는 핍박의 이유와 핍박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5-22절과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성전 앞뜰에서 종종 이루어지곤 하던 단순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토론에서 따르는 다소의 소란이 종종 있었고, 이는 묵인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선포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을 민중의 흥분이 자칫 자신들의 권력에 대하여 비난과 도전으로 발전할까 염려되어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와같은 부당한 핍박 앞에서 사도들이 보여 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의 모든 육적,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 제 것이라는 이가 없었더라 』(4:32)

본 문은 앞에서 일어난 상황을 새롭게 전환시켜서 사도들의 석방과 그로 인한 교회의 신앙적인 반응(23-31절), 그리고 초대 교회의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32-37절)에 관한 기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도들을 꾀박한 공회원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대처하려는 자세와 각오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성도간에 분열없이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24절). 그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외부의 꾀박이 오히려 성도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것입니다. 꾀박을 선동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17절) 달리 그들의 꾀박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결속시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외부의 꾀박이 심해질수록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땅 위에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한난과 꾀박 중에도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¹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11)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4장 후반부에서 보여 주고 있는 사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바나바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순전하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함께 나눌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순수한 공동체를 배반한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중징계를 받고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있는 이후에 교회내의 죄를 청산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온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아픔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힘써 세워가도록 저를 순결하게 지켜 주소서.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미땅하니라. (5:29)

본 문은 4장 1-22절에 이어서 사도들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두번째 핍박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투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에 의한 구출, 그리고 복음 증거 등이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는 대적들의 핍박 열기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사도들의 담대한 신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살인죄에 대한 정당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었는줄 알았지만 그가 다시 부활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문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에 초대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로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였고 다시 공회 앞에 잡혀 왔을 때에도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으로서 자처하기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은 것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결과였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꾼을 택하라 ...”(6:3)

교 회가 성장하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일에 적합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초대 교회도 같은 이유로 일꾼을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일꾼을 선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찬은 하나님에게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듣는 일꾼을 세웠는데 본문의 4절을 보면 이 일을 통하여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 중에서 일꾼들을 기쁨으로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을 허락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주님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7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6:10)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은 초대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 멀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니 예루살렘에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변론할 때 자신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받은 은혜와 권능을 소유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지혜와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 』 (37:5)

스테반의 죽음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핍박의 정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톱에 잘리며, 화형당하고 사자 입에 떨어진 초대 교회 성도들은 스테반의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후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테반은 순교 직전 기독교의 핵심을 담은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강력히 비난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반과 논쟁을 하던 자들이 스테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테반을 모함하고자 거짓 증인까지 등장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전혀 동요됨 없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스테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테반의 설교의 마지막은 그들을 향하여 모함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담대하게 책망을 합니다. 나아가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핍박하였고 죽였다는 범죄 사실을 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담대한 외침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외쳐지기를 원하십니다.

-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의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7:59)

스데반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질 때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도 유대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죽음의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제 이런 스데반을 향하여 백성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기도는 결국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8:17)

만은 성도들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다가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그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회가 있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초대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8:29)

병 거에 올라 광야 길을 달려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례히 옛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리를 내어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읽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를 펼쳐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거 옆으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과 빌립 집사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었습니다. 한 변화된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생명의 복음이 뿌려지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구약의 신앙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의 중재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만남의 중매자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재무장관 내시는 무지 중에, 빌립 집사는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심으로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이루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의 중매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 오늘 저와 저의 가족을 생명 살리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9:6)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현재 하려고 하는 일은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과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그를 다메섹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단자들(예수 추종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는 일에 그는 모든 힘을 쏟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 추종자들이 구약의 신성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새로운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그대로 지니신 채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4절).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사울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핍박자 사울을 바꾸어 이방인을 향한 예수 증거자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자신의 길입니까?

나의 길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 나의 고집으로 나의 역사를 이루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소서. ② 남북이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9:22)

우리는 간혹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들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반짝 달라졌다가 이내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범비신앙'이라는 말로 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것은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했다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증오하던 대상을 이제는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게 된 한 사람 사울을 만납니다. 그의 이 변화는 너무도 급격했습니다. 사울의 이 급격한 변화는 '즉시로' (20절)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의 종 아나니아는 두려워했고, 방금 전까지 같은 편에 섰던 유대인들은 분개하였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요동할 만한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변화한 이후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궤도를 향하여(빌 3:14)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주 돌아보고, 옛 자리를 그리워하고, 어느새 그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변화는 후회함이 없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제 마음이 자주 왔다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② 지원받는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9:31)

“그리하여 ... 되었더라”는 식의 글을 읽게 되면, 우리의 호기심은 자연히 그리하여 앞의 내용에 집중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 ‘그리하여’는 우리에게 초대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안정을 보여 주면서 우리의 관심을 그 원인으로 향하게 합니다.

본래 오순절 사건 직후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부흥을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하여’ 앞의 내용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갈 1:18).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갈 1:18-19) 사귀고자 했습니다(행 9:26). 그러나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 자체로 큰 두려움과 긴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자 사울의 개종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긴장은 위로자 바나바의 사랑의 중재로 해소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는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복음의 적대자들이 밀집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9:29). 바로 이 ‘일치됨에 기초한 복음 전파’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하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왕성한 부흥은 하나됨에서 시작됩니다.

-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형제들과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 일어나 앉는지라”(9:40)

수년 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데가볼리 건너편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 회당장의 딸은 병을 앓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도착한 예수님과 더불어 베드로는 죽은 아이가 누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죽었던 아이가 생명을 얻어 일어서는 놀라운 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막 5:35-42).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창조력’이 담겨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으로 병상에 누운 지 팔년째인 애니아, 그리고 병들어 죽은 여자 다비다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절망적인 형편 중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신과 주변에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이웃들이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게 하시니 일어나라”(34절). 베드로의 목전에서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베드로를 통해 가망없는 몸을 일으키시고 죽은 몸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자주 쓰러지는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깨우시는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소서. ②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품을 제거하시고, 개개인이 각자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시몬을 청하라』(10:5)

로마 군인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요즘 군대의 중대장(대위)에 해당됩니다. 신약의 초기 역사에 등장하던 백부장들은 당대에 그 자질면에서 호평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달랐겠지만 당시 백부장들은 직업상 꾸준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훈련된 부류였습니다. 고넬료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꾸준함과 신중함은 두드러지게 엿보입니다. 그는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말의 모든 과정에서 초지일관한 태도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런 꾸준함과 신중함으로 고넬료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2절).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4절 하반절).

하나님은 바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숙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5절). 그는 두려웠지만(4절 상반절),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움직였고,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시켜 베드로를 초청토록 보냈습니다(7절). 하나님의 숙제에 대한 그의 순전하고도 즉각적인 순종은 잠시 후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숙제를 주고 계십니까? 그 숙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내어 주신 숙제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내 영혼을 살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순종케 하소서. ② 3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4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 서문

히브리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지기 시작한 부분적인 자료들 중 특히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의 내용을 이 두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책에는 페르시아(바사)제국 군주들의 편지와 칙령들 중, 유대인들에게 관계되는 부분이 당시 공문서에 쓰이던 아람어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기록은 기원전 4세기 초였을 것을 추정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던 소망(렘 1:13,14)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회복될 가망성이 회박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낙망 중에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깜짝 놀랄 만하게도 이들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귀환자 공동체 주변에는 배타적인 분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두드러진 분파는 세겜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한 사마리아인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귀환자 공동체와 사마리아 집단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택하신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은 성전재건의 작업과 더불어 면면히 이어졌고,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 | |
|---------------------|----------------------|
| 1:1-2:70 포로생활에서의 귀환 | 4:1-24 방해로 인한 재건의 중단 |
| 1:1-11 고레스의 조서 | 5:1-6:22 성전의 재건과 봉헌, |
| 2:1-70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 | 그리고 유월절 |
| 3:1-6:22 성전 재건 | 7:1-8:36 에스라의 귀환과 사역 |
| 3:1-13 회복된 예배와 | 9:1-10:44 잡혼의 문제와 처리 |
| 성전 재건의 시작 | |

제 1 과

에스라(1)

제2의 출애굽

찬 송 / 433장

읽을 말씀 / 에스라 1:1-2:70

공부할 말씀 / 에스라 1:1-6

함께 읽기

기원전 587-586년에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의 동맹국 에돔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포함하는 예언(렘 29:1-28)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단 9:2).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서를 펼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넣으신 예루살렘 귀환의 예언이 어느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언된 포로기 70년이 지나자,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2:4절, 참조. 대하 36:23).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레스의 결단도, 예레미야의 예언도,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도 하나님 주권의 부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은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환키로 한 사람들의 목록을 열거합니

다.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편안히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찾아 귀환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사 55:6-13).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고하신 바를 고레스를 순종시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고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렘 25:11, 29:10)
2. 고레스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2-3절, 참조. 대하 36:23)
3.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는 무엇입니까?(2-3절)
4.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습니까?(4, 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은 보통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이방 제국의 왕, 사면 사람들의 패물과 보물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참조. 출 11:1-3) 등이 천여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백성들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들과 불신자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본문이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리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유사성보다는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이방제국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위치이동'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땅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 아래 들어가는 매일의 출애굽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로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옛 세력의 주장'은 없는지요?

제 2 과

에스라(2)

주의 일에 기여든 내우외환

찬 송 / 359장

읽을 말씀 / 에스라 3:1-6:22

공부할 말씀 / 에스라 3:10-4:6

함께 읽기

에스라서의 주요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사야 54장과 에스겔 40-48장에 예언된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환한 백성들은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서 귀환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3:2-6),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3:8-9). 사람들마다 기쁨에 겨워 축하찬송을 불렀습니다(3:10-11).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성전과 현재의 성전 기초를 비교하며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났습니다(3:12-13). 그리고 귀환자들보다 먼저 거주하던 토착 주민들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4:1-6). 이에 따라 성전 건축은 중단(거의, 14년간)과 재건을 반복합니다. 결국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 기록이 확인되면서 성전 재건이 급속히 진행되고, 드디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6:14-15). 귀환자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기쁨의 축제를 열고(6:16-18), 유

월절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합니다(6:19-22).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아지자 백성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반응과 그러한 반응의 배경은 무엇일까요?(3:10-12 참조. 학 3:1-3)
2.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4:1)
3. 그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4:2)
4. 그러나 본래 이 토착민들의 신앙생활의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7:27-33을 참조하십시오.
5.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스룹바벨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4:3)
6.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4:4-6)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먼저 시작된 것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노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못미치는 현재의 성전 기초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감사를 거두어간 것은 '비교'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비교'는 객관적인 판단을 준다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신앙의 본질과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비교'에는 언제나 자신의 것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구역은 어떠합니까?
2. 귀환자들의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자처했던 토착민들은 자신들을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신과 나란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부패한 종교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종교혼합주의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는 논리와 달콤한 관용주의를 앞세워 우리들의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러한 혼합주의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혼합주의, 예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는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결연한 거절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제 3 과

에스라(3)

에스라와 말씀

찬 송 / 234장

읽을 말씀 / 에스라 7:1-8:36

공부할 말씀 / 에스라 7:1-10

함께 읽기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진 기원전 515년 이후 약 67년(혹은 58년)이 지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귀환자들의 신앙은 대단히 느슨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스 1:10).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 아닥사스다로부터 예루살렘 신앙의 재건을 보장받는 조서를 받았습니다(7:11-26).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을 통해 귀환자들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7:27-28). 에스라는 동역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자세히 헤아리는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8:1-20). 그는 기도와 금식을 무기로 하여서(8:21-23) 성물들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1절의 '이 일 후에'는 1차 귀환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의 과업이 끝난 후 5-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자 그룹 1천 5백여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중간 기간 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중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발견해 보십시오(말 1:6-2:16).
2. 1-5절 사이에는 에스라의 족보가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혈통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학식이 인정된 자)로, 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실 사이에는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은 이 둘 사이를 어떤 설명으로 연결시켜 주니까?(6절)
4. 에스라가 관심을 집중하여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신앙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

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저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잠자는 공동체(가정, 구역, 친족의 모임 등)를 깨우시기를 원한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 앞에 있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2. 언제든지 그 헌신된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방 왕의 호의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자격과 주관적인 확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마치 이 둘이 대립되는 듯이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참조. 눅 2:52). 당신은 어떠합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경원시 당하면서 오히려 자기확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반대로 지나친 자기 비하로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확신조차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3. 개혁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생명의 진리만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나는 사람의 설득하는 말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4 과

에스라(4)

잡혼의 문제와 처리

찬 송 / 212장

읽을 말씀 / 에스라 9:1-10:44

공부할 말씀 / 에스라 10:1-15

함께 읽기

9장 1절에 또 한번의 '이 일 후에' (7:1 참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에스라의 율법 교육이 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잡혼의 문제가 생긴 것을 볼 때,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스라의 율법 교육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그러나 본문상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저질러지고 있던 잡혼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망령된 소식을 접하자마자 분개해 마지 않은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9:3-15). 다행히도 이 중보의 회개기도는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어, 기도예 동참케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도록 역사합니다(10:1-14). 소수의

반대자들(10:15)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백성 가운데서 이방여인들과의 잡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에스라가 반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보십시오. (9:3, 5, 10:1, 6)
2. 에스라의 기도로 시작된 회개운동은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1절 하반절)
3. 진정한 회개에는 고백과 결단(돌이킴)이 동반됩니다. 2-3절에서 백성들의 고백과 결단을 찾아보십시오.
4. 개혁에는 반대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의 명단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7:1-6에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면서

그 이유를 배교의 위험으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중에 곤두박질 처지면서, 또 영적 혼란기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이 명령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 회색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편의를 앞세워 이방인들과의 잡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의 '현실적인 적용'(구체적인 실천)과 '편의적인 적용'(이기적인 타협) 사이에서 후자를 택하여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편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말씀의 편의적인 적용으로 치우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2. 에스라서는 이방여인과 결혼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긴 명단을 열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에스라서의 이러한 구성은 '말씀을 편이에 따라 왜곡시킨 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타협 뒤에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무언의 지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타협한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험이 있으시면 솔직한 대화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3. 잡혼의 문제는 에스라에 의해 일단 처리되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 문제는 다시 또 거론됩니다(느 13:23-31). 악의 쓴 뿌리는 깊고 깊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참고, 갈 5:16, 롬 8:4-5).

MEMO

MEMO

OKJIA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